빛그린산단 진입도로 등 현안 24건 1천548억 지원 요청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서울서 예산정책간담회
李시장 "국회 심의과정 증액 위해 최선 다할 것"
의원들 "상시 소통·협력…지역발전 앞장" 화답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전선 전철화,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등 지역 현안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다시 한번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 관련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천정배·김동철·박주선·장병완·김경진·권은희·최경환·송갑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국비요청 사업 가운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6건 617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 5건 163억원, 가상 교육·훈련 콘텐츠 활용 및 확산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 2건 34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국토교통위 4건 570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등 환경노동위 소관 3건 84억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등 보건복지위 2건 50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 행정안전위 2건 30억원 등 총 24건 1천548억원을 건의했다.

특히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산단인 빛그린산단과 하남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대차 완성차 부지인 빛그린산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부품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설 도로이며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중인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 필요한 시설비 국비 81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주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모델인 '광주형 산업단지 임금 모델'을 체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광주형일자리와 관련된 통합지원센터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 사업의 실시설계비로 국비 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반영액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다"며 "광주시와 정치권이 상시 소통하고 협치하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된 광주시 2019년 국비 정부예산안은 전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2천346억원(13.2%) 증가된 2조149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예결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화순백신특구 투자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구충곤 화순군수, 앤드류 베일리 바이로슈어 대표, 정광덕 ㈜영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완 ㈜큐리진 대표이사, 현병용 한국프라임제약㈜ 대표이사와 투자 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한 4개 기업은 의약품과 병원균의 안전성 시험, 난치성질환·치매치료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170억원을 화순백신산업특구에 투자한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원 의정비 5천674만원…2.6% 인상

심의위, 월정수당 3천874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결정

2019년 광주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가 전년 대비 2.6% 오른 연간 5천674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관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이 같이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 3천874만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천800만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키로 했다.

광주시는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계로부터 10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해 오던 것을, 지난 10월30일부터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주민수,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다. /김재정 기자

시민단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질의에
시의원 13명 답변 회피…10명만 '찬성'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여부를 묻은 시민단체의 질문에 광주시의원 23명 중 13명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찬성한 시의원은 10명이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6-14일 광주시의원들에게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10명의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13명의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원(응답 순)은 장연주(정의·비례)·최영환(민주·비례)·정순애(민주·서구2)·정무창(민주·광산2)·김학실(민주·광산3)·김용집(민주·남구1)·김광란(민주·광산4)·신수정(민주·북구3)·박미정(민주·동구2)·김나윤(민주·북구6) 의원 등이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김동찬(민주·북구5) 의장을 비롯, 장재성(민주·서구1)·임미란(민주·남구3)·이경호(민주·북구2)·김익주(민주·광산1)·황현택(민주·서구4)·송형일(민주·서구3)·이홍일(민주·동구1)·김점기(민주·남구2)·반재신(민주·북구1)·나현(민주·비례)·조석호(민주·북구4)·이정환(민주·광산5) 의원 등이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13명의 의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회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10명 중 장연주·최영환·정순애·정무창·김학실·김용집·김광란·신수정 의원 등 8명은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민회의는 "시의회가 아직까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어정쩡한 태도가 광주시민들보다 새마을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행정감사 기간을 감안해 당초 마감일을 13일에서 15일까지 연장했음에도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답변을 회피했다"며 "의원들이 의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 표명조차 묵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기초의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5-16일 이틀간 나주에서 소속 기초의원 234명(광주 54명, 전남 18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강의를 시작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책 교육', '국정운영의 방향과 이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제와 사례'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획 단계부터 기초의원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기초의원 교육연수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민주당 윤리규범 교육을 겸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연수 실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